

# 고르바초프 혁명과 스탈린 체제: 글라스노스찌 시대의 역사 다시 쓰기

김남섭  
(가톨릭대 국사학과)

## 1. 서론

1985년 3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최고 권좌인 서기장직에 등극한 후 소련이 정치 및 사회생활 등 나라의 전 분야에 걸쳐 어떤 격심한 변화를 겪었는지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고르바초프는 빼레스뜨로이카(perestroika) 정책을 통해 브레주네프(Leonid Brezhnev) 시대 이후 침체해진 소련의 경제를 재건하려 하였고, 선거에서 복수 후보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당내 민주화를 통해 경직된 일당 독재 체제를 나름대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 대외 정책에서 “신사고”를 표방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오랜 적대관계도 청산하려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글라스노스찌(glasnost) 정책을 통해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고취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이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1991년 12월에 발생한 소련방의 공식적인 해체에 각각 일정 정도 기여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이 중에서 소련에서의 “현실 사회주의”의 종언과 관련하여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고르바초프가 보수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심화시킨 글라스노스찌 정책일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 유례없는 문화생활의 자유화를 통해 스탈린주의적 도그마에 물든 당내 보수파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개혁의 추동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자유화의 힘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린 결과 그 자신을 비롯한 소련 지도부 전체가 궁극적으로 소련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글라스노스찌 정책의 혜택을 본 문화 분야는 역사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 사회 과학, 법률, 예술, 언론 등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이제 소련 국민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론이 불가능했던 주제들, 즉 민족주의, 종교, 매춘, 부패, 마약, 자살, 여성 및 아동 학대, 의료제도 등 체제가 드러내고 싶지 않던 사회생활의 모든 주제에 대해 거의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그 중에서도 특히 소련이 봉착한 체제상의 문제들의 근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역사는 소련 국민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열띤 논의의 대상이었다. 작가, 정치가, 시사평론가, 그리고 역사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자신들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과 그에 대한 나름의 분석들을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쏟아놓았다. 고르바초프 개혁에 동조적인, 『신세계』(Novyi mir), 『깃발』(Znamia), 『민족 친선』(Druzha narodov), 『청년』(Yunost'), 『10월』(Oktiabr') 등 중앙의 “두터운 월간지들”과 『문학 신문』(Literturnaia gazeta), 『등불』(Ogonek), 『모스끄바 뉴스』(Moskovskie novosti), 『콤소몰스카야 뿌라브다』(Komsomolskaia pravda) 등의 주간지와 일간지들이 이들 논의의 주된 지면들이었고, 본격적인 학술 잡지인 『역사 문제』(Voprosy istorii), 『소련사』[Istoriia SSSR, 지금의 『국사』(Otechestvennaia istoriia)] 등도 논의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리고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지방의 잡지들과 신문들도 중앙의 간행물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방민들의 팽배한 논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주요 장

1) 글라스노스찌를 통해 일반 소련 국민들 사이에 언론의 자유가 실제로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헌으로는 Jim Riordan and Sue Bridger(1992), trans. and eds., *Dear Comrade Editor: Readers' Letters To the Soviet Press under Perestroika*, Indiana University와 Vitaly Korotich and Cathy Porter(1990), eds., *The Best of Ogonyok: The New Journalism of Glasnost*, Heinemann을 참조하라.

소가 되었다.

영국의 역사가 데이비스(R. W. Davies)가 “정신혁명”이라고 부르고,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 노브(Alec Nove)가 “문화 르네상스”라고 적절하게 지칭한,<sup>2)</sup> 소련의 과거를 둘러싼 이와 같은 논의의 폭발은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동시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혁명은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지 2년 후인 1987년 초에 그가 소련 역사의 “빈 곳”을 채울 것을 역설하면서 대체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같은 해 11월 초의 볼셰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일에 있었던 연설은 과거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환기하는데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10월 혁명부터 브레주네프 시기까지 소련 공산당이 겪은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개괄하고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스탈린의 개인숭배, 농업 집단화 정책, 1930년대의 테러, 스탈린의 최대 정적 중의 한 명이었던 부하린 등에 대해 그 역사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였다.<sup>3)</sup>

게다가 고르바초프 하의 “역사 글라스노스찌”는 시대적 선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3년 뒤에 시작된 흐루시초프(N. Khrushchev)의 스탈린 격하 운동은 이른바 『단기 강좌』라는 1938년에 발간된 당의 공식 역사서<sup>4)</sup>의 사실 왜곡에 내심 비판적이던 일부 소련 역사가들로 하여금 획일적인 스탈린주의적 역사 해석에 반기를 들게 하는 데 충분하였다. 특히 1917년 혁명과 1930년대의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수행된 스탈린의 역할이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sup>5)</sup> 하지만 흐루시초프 하의 역사 다시쓰기는 한계가 명확하였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체제 비판은 이처럼 “스탈린의 개인숭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따라서 스탈린의 인격 결함에서 비롯한 “오류”와 “과도함”만을 문제로 삼을 뿐이었다. 이런 점에서 고르바초프 하의 역사 다시쓰기는 역사 분야에서의 흐루시초프의 탈스탈린화를 기본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되, 그것을 훨씬 더 세련되게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87년의 고르바초프의 연설 전후로 시작하여 고르바초프가 몰락한 1991년까지 소련 국민들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졌던 소련 역사에 대한 논의를, 특히 스탈린 체제에 대한 여러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소개를 통해 필자는 글라스노스찌 시기 동안 소련 역사에서 스탈린 시대의 어떤 사건과 인물이, 어떤 맥락 하에서 역사 다시쓰기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필자는 이 시기 동안 스탈린 체제에 대한 소련 역사학의 수정주의가 어디까지 진전되었고, 그것이 향후의 스탈린 체제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또 거꾸로 이 논의들의 시대적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sup>6)</sup> 끝으로 이 논문에서 검토의 주요 대상이 되는 텍스트

2) R. W. Davies(1989), *Soviet History in the Gorbachev Revolu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Alec Nove(1989), *Glasnost' in Action: Cultural Renaissance in Russia*, Unwin Hyman.

3) M. Gorbachev(1987), *October and Perestroika: the Revolution Continues*, Moscow, pp. 7-38.

4) *Istoriia vsesoiuznoi kommunisticheskoi partii (bol'shevikov): Kratkii kurs*, Moskva, 1945를 보라.

5) Roger D. Markwick(2001), *Rewriting History in Soviet Russia: The Politics of Revisionist Historiography, 1956-1974*, Palgrave, pp. 51-62와 pp. 115-134.

6) 국내에서 고르바초프 시기 동안의 역사 다시 쓰기에 대한 소개는 필자의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 당대에 한정숙은 비슷한 주제의 논문에서 고르바초프의 빼레스뜨로이카 정책의 결과 소련 역사학이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한정숙은 70여 년에 이르는 소련 시기 전체를 다루고 있는 반면, 필자는 스탈린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정숙(1991), 「볼셰비키 혁명사가 크게 수정되고 있다」, 『역사비평』, 봄호를 보라. 필자가 스탈린 체제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의 시대야말로 고르바초프의 빼레스뜨로이카 정책을 불가피하게 만든 각종 문제점들이 체제의 불가분한 특성들로서 확고하게 자

들은 이 시기에 주로 잡지나 단행본 속의 한 논문 형태로 발표된 수많은 글들 가운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극히 소수의 일부 글들에 국한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아마도 훗날 “역사 글라스노스찌”의 역사가 씌어졌을 때, 우리는 이 시기에 발표된 모든 글들 중 적어도 상당 부분을 망라하는 참고문헌 목록을 온전히 갖게 될 것이다.

## 2. 농업 집단화: 탈꼴라끄화와 기근

소련에서의 농업 집단화 문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흐루시초프 시대에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 수정의 시도가 있었을 정도로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찌 하에서 가장 논란을 많이 일으킨 문제들 중의 하나였다. 흐루시초프의 “해빙” 기간 동안에도 농업 집단화가 일부 과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소련의 문필가들은 이제 반드시 그런 주장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집단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가혹한 “탈꼴라끄화”(raskulachivanie) 정책이었다. 1929년 후반부터 몇 년 간에 걸쳐 수백 만 명의 소련 농민들을 인민을 착취하는 꼴라끄(kulak)라는 낙인을 찍어 체포하여 오지로 추방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수감시킨 이 정책(공식적으로 “계급으로서의 꼴라끄 청산”이라 불리었다)은, 일부 문필가들의 눈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계급”을 쫓아 그들을 “절멸”시키는 일종의 유령 놀이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어 1988년에 경제학자 셀류닌(V. Seljunin)은 1930년에 꼴라끄라고 불린 사람들이 사실은 건전하고 유능하며 활기 넘치는 농민들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보기에 대부분의 진짜 꼴라끄들은 혁명 직후인 1918년에 이미 토지를 박탈당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sup>7)</sup>

이러한 인식은 농업학자 씨호노프(V. A. Tsikhonov)에 의해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졌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1928년 현재 소련 전역에는 총 2,600만 농가가 존재하고 농가에 고용되어 있는 상시적인 피고용 노동자 수는 67만 명이다. 피고용자 한 명이 평균 6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련 농가 한 호를 먹여 살릴 수는 없으므로, 소련 당국의 정의에 따라 3명 이상의 상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꼴라끄 농이라고 한다면, 꼴라끄 농의 수자는 67만 호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잡아도 223,000호 정도이다. 이 수치는 전체 농가의 1%에 이하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들은 “계급”을 형성한다기보다는 “계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레닌도 혁명 초기에 일관되게 꼴라끄 농들을 “계급”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계층”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탈꼴라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련 당국이 내세웠던 “계급으로서의 꼴라끄 청산”이라는 구호는 역지로 꾸며낸 것이다. 당국이 이 캠페인을 통해 노렸던 유일한 목표는 꼴라끄들을 절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민 계급을 절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절멸 정책 때문에 1933년까지 약 270만 농가가 절멸되었다. 이는 전체 농가의 거의 10%를 이루는 것이었다.<sup>8)</sup>

한편 꼴라끄 청산과 관련하여 청산 방식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 작고한 저명한 역사학자 다닐로프(V. P. Danilov)는 탈꼴라끄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이 캠페인의 방

---

리 잡은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Alec Nove(1989), *Glasnost' in Action*, p. 74.

8) “Kollektivizatsiia: Istoki, sushchnost', posledstviia. Beseda za 《kruglym stolom》,” *Istoriia SSSR*, No. 3, 1989, ss. 29-30. 탈꼴라끄화 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서방학계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데이비스는 이미 1980년에 농업 집단화에 관한 뛰어난 저서에서 탈꼴라끄화가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R. W. Davies(1980), *The Industrialization of Soviet Russia 1. The Socialist Offensive; the Collectivization of Soviet Agriculture 1929-1930*, Macmillan, pp. 234-252를 보라.

식과 수단에 관해 불세비끼 당국이 처음에 어떤 원칙도 없었음을 지적한다. 1930년 1월 말 이미 탈콜라끄화가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을 때 뒤늦게 내려진 당국의 지시는 콜라끄를 소련 당국에 대한 저항 정도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고 각 무리를 체포 및 오지로의 추방으로부터 원 거주지 인근의 지역으로의 분산 이주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명령한다. 문제는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위성과 모호성이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당국의 횡포가 광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sup>9)</sup> 뿐만 아니라 이 지시에는 각 지역별로 추방당할 가족의 수가 할당되고, 이는 실제 콜라끄 수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처벌 받기를 원치 않는 현장의 관리들이 집단 농장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는 중농과 심지어 빈농까지도 탈콜라끄화 대상에 필연적으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식적으로 탈콜라끄화 대상자의 비율이 전체 농가의 3-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그 비율은 10-15%에 달하였다. 더욱이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소비에트 당국의 폭력과 협박을 수반하였고, 이 같은 무리한 탈콜라끄화 캠페인에 대항한 농민들의 저항도 극단적으로 되었다. 농민들은 집단 농장 조직가에게 테러를 가하였고 그 재산에 불을 질렀으며, 심지어 소비에트 체제 자체에 반대하는 폭동도 조직하였다. 탈콜라끄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재앙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콜라끄들을 청산했다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콜라끄들을 일거에 폭력적으로 절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집단 농장 업무에 참여시키는 등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했다라면 착취자의 절멸은 거의 부작용 없이 가능했으리라는 것이다.<sup>10)</sup>

스탈린 시대의 농업 집단화와 관련하여 고르바초프 시기 동안 큰 논란이 된 또 하나의 주제는 1932-33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소련 남부를 휩쓴 대기근이었다. 이 기근은 고르바초프 이전에는 소련의 공식 역사서에서는 전혀 취급되지 않거나 소련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인되었으며,<sup>11)</sup> 심지어 고르바초프 하에서도 초기에는 대중 매체에서 거의 언급이 없었다. 이 대재앙은 1987년 고르바초프의 11월 연설 이후에야 문인들과 역사가들 사이에서 솔직한 논의가 시작되었다.<sup>12)</sup> 역사가들 중 우크라이나의 기근 문제를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은 다닐로프였다.<sup>13)</sup> 그는 대기근이 흉작이라든지 농업 집단화 자체의 직접적 결과라기보다는 공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1931년과 1932년의 곡물 수확량은 전반적으로 이전 몇 년간보다 조금 적었을 뿐이었으므로 그 자체 기근의 원인이 될 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곡물이 부족했던 까닭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업화 속도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공업 설비를 확충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대량으로 조달하여 해외로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과 그 결과 발생한 대기근을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

9) "Kollektivizatsiia: Kak eto bylo," v V. G. Afanas'ev i G. L. Smirnov(1989), red., *Urok daet istoriia*, Moskva, ss. 164-165.

10) V. P. 다닐로프(1993), 「소련의 농업 집단화」, V. P. 드미트렌코 외, 『다시 쓰는 소련 현대사』, 열린책들, 234-238쪽. 이 책의 러시아어 원 텍스트는 1990년에 작성되었다.

11) 단지 흐루시초프 집권 중이었던 1960년대 초에 일부 소련 작가들이 자신들의 소설에서 이 광경을 묘사했을 뿐이다. 앞의 논문, 240-241쪽.

12) 고르바초프 시대 동안 문학에서 대기근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Rosalind Marsh(1995), *History and Literature in Contemporary Russia*,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81-82를 볼 것.

13) 서방에서는 다닐로프 이전에 이미 콘퀘스트에 의해 이 주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R. Conquest(1986), *The Harvest of Sorrow: Soviet Collectivization and the Terror-Famine*, Hutchinson 참조.

었으며 이 점에서 그들은 이 비극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sup>14)</sup>

1932-33년의 대기근이 날씨 등의 천연적 요인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끊임없는 곡물 조달 요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다닐로프의 주장은 그 후 지역 연구에서 좀더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소장 역사학자 콘드라신(V. V. Kondrashin)은 불가강 유역의 사라토프와 뻬자 지방 주민들 270여 명에게 1932-33년의 기근의 원인과 결과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그 답변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이 지역은 소련에서 가장 비옥한 곡물 생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32-33년 동안 전염병과 기아 등으로 사망률이 1927-32년 때보다 3.4배나 급등하고, 젊은이들의 사망 증가로 출생률이 급감하는 등 극심한 기근 현상을 겪었다. 그런데 1931년과 1932년에 기근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가뭄은 없었으며, 그 결과 1932년의 곡물 수확량은 지역 주민들을 부양하고 대규모 기아를 방지하는 데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 당국은 심지어 이 수확량을 바탕으로 국가에 일부 곡물을 넘겨줄 수도 있었다.

이처럼 예년과 비슷하게 평균적인 추수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근이 발생한 이유는 농민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농업의 전반적인 약화를 가져온 집단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닐로프의 주장처럼 불세비끼 당국의 강제적 곡물 조달 정책 때문이었다. 불가 지역의 주민들은 대기근 동안 이미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순간에도 “마지막 한 톨까지” 국가에 곡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때문에 집단 농장원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불가 지역의 이 같은 심각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가혹한 조달 정책을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심지어 1932년에는 불가강 중류와 하류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곡물을 더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강제적 곡물 조달 정책에 대해 주민들은 비록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항은 별이지 않았지만, 조달 열차를 습격하여 곡물을 탈취하는 등 산발적으로 대응하였고, 당국은 이런 식이든 말로든 불만을 표출하는 농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였다.<sup>15)</sup>

고르바초프 시기 소련의 문필가들은 당연히 이 대기근의 희생자 수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나름대로 개략적인 추산도 시도하였다. 초기에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정확한 수자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데이비스나 게티(J. Arch Getty) 혹은 콘퀘스트(R. Conquest) 등 서방 역사가들의 계산에 근거를 두고, 총 2,500만에서 3,000만 명에 이르는 기근 경험자 중에서 300만-70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어림짐작하였다.<sup>16)</sup> 좀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추산은 고르바초프 시대 말기에 한 소장 역사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소끼나(E. A. Osokina)는 최근 문서고에서 발굴된 인구 통계에 관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1933년에 소련 전역에서 총 670만 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서 300만 명이 기근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 300만 명 중 농촌 주민은 2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지역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sup>17)</sup>

14) “Kollektivizatsiia: Kak eto bylo,” ss. 170-172.

15) Viktor V. Kondrashin(1991), “Golod 1932-1933 godov v derevniakh Povolzh'ia,” *Voprosy istorii*, No. 6, ss. 176-181.

16) “Kollektivizatsiia: Istoki, sushchnost', posledstviia. Beseda za 《kruglym stolom》,” s. 52에 실린 체르니첸코(Iu. D. Chernichenko)의 발언을 보라. 다닐로프는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대략 300만에서 4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다고 말한다. V. P. 다닐로프(1993), 「소련의 농업 집단화」, 245쪽.

17) Elena A. Osokina(1991), “Zhertvy goloda 1933 goda: Skol'ko ikh (Analiz demograficheskoi statistiki TsGANKh SSSR),” *Istoriia SSSR*, No. 5, ss. 18-26. 이러한 평가는 1933년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1932년의 피해 상황을 더하면 1932-33년의 대기근으로 인한 희생자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라는 것은 자명

1932-33년의 대기근에 대한 점증하는 문필가들의 관심은 소련 역사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탐구로도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47년에 몰다비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을 휩쓴 또 하나의 기근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사례들 중의 하나다. 이 기근 역시 1932-33년의 기근처럼 정부에 의해 그 기록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르바초프 시대 이전까지는 역사서를 비롯한 소련 내 어느 문헌에서도 거의 언급이 없었고 서방 학계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80년대 말이 되어서야 몰다비아와 우크라이나의 문필가들을 중심으로 처음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곧 이어 역사가들에 의해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의 한 명인 볼코프(I. M. Volkov)에 따르면, 1946-47년의 기근은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우선 1932-33년의 경우와는 달리 이 기근은 1946년에 발생한 가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가뭄은 위력과 규모 면에서 1921년의 가뭄보다 심각했으며, 악명 높은 1891년의 가뭄과 비슷하였다. 둘째, 소련의 집단 농장과 국영 농장은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영농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기계와 인력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적절한 파종이나 양질의 경작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집단농장의 농민들도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지 못해 영농에 흥미를 잃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남부 몰다비아와 중앙 흑토지대 및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발생한 흉작이었으며, 1946년의 수확량은 1940년 수준의 절반이자 전년도인 1945년보다 훨씬 적었다.

여기에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들이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소련 당국은 1932-33년 때와 마찬가지로 낮은 조달 가격으로 곡물을 의무적으로 자신들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농민들이 현물로 지불해야 할 기계-트랙터 배급소(MTS)의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련 정부는 자국의 농민들을 희생으로 전쟁 후 식량 부족을 겪고 있던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에 대규모의 식량 지원을 감행하였다. 식량이 부족하자 정부는 직접적인 곡물 배급이나 식량 배급제의 실시 혹은 무료 급식소의 설치 등을 통해 사태를 타개하려 하였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의 총체적 결과는 식량 부족을 특히 심하게 겪던 몰다비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심각한 기근의 발생이었다. 이 기근의 결과 지역민들 사이에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 가축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절도나 강도 등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sup>18)</sup>

### 3. 스탈린주의적 공업화와 그 대안: 행정-명령 체제, NEP, 부하린

고르바초프 시기 동안 소련 문필가들과 역사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세밀한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농업 집단화 문제와는 달리, 스탈린 체제의 확립을 가져오는 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공업화 문제는, 대안과 관련된 논의 외에는 그 자체 상대적으로 큰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스탈린 하의 급속한 공업화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엄청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놓았다는 부인하기 힘든 사실로 인하여,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정 하에서 공업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글을 내놓은 사람은 노장 역사학자 렐

---

하다. 가장 최근의 서방측 계산으로는 1932-33년 대기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약 460만 명으로 추산된다. R. W. Davies and S. G. Wheatcroft(2004), *The Years of Hunger: Soviet Agriculture*, Palgrave, p. 412.

18) Ivan M. Volkov(1991), "Zasukha, golod 1946-1947 godov," *Istoriia SSSR*, No. 4, ss. 3-19.

추크(V. S. Lel'chuk)였다. 그는 우선 1929년 4월에 채택된 제1차 5개년 계획안이 처음에는 공업과 농업의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원칙 하에서 작성된 신중한 계획이었음을 확인한다.<sup>19)</sup> 그것은 모든 기업에의 독립 재산제(khozraket) 적용이라는 NEP(신경제정책)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공업은 농업에 트랙터와 비료 등 필요한 공산품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29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미증유의 대공황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소련 지도자들 사이에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높아 가자 스탈린의 주도 하에 그 해 11월에는 공업화의 속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계획 원안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sup>20)</sup> 그 후 스탈린은 농업을 무시하고 중공업의 무모한 발전을 옹호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의 적”이자 “계획의 적”으로 몰아붙였다. 이는 NEP와 국내 평화를 옹호한 “레닌주의 원리”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스탈린의 이와 같은 이탈은 NEP 시기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내적 모순에 의해 야기되었다기보다는 스탈린의 선택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스탈린 체제의 탄생은 필연적이지 않았다.

스탈린주의의 탄생을 필연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렐추크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차 5개년 계획 중 처음 2년 동안만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다. 이 때는 NEP라는 이전 체제가 아직 작동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만큼 NEP가 경제발전을 위해 제공할 수 있던 예비 자원은 매우 컸다. 그 후 계획의 목표들이 달성될 수 없었던 것은 “주의주의(voluntarizm)의 시대”에 목표들이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의 목표들만 고수하였더라면, NEP를 폐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필연적으로 스탈린주의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쟁 위협 때문에 급속한 공업화가 필수적이었던 주장도 미심쩍다. 왜냐하면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국방과 그 관리에 투입된 실제 비용은 1932년만 제외하고는 계획된 비용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결과에 대해 스탈린은 4년 3개월만에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공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예정된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농업과 경공업의 성과는 목표에 현저히 뒤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련 국민들의 생활수준 악화였다. 게다가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채찍질” 당하는 바람에 소련 경제에서 경직된 중앙 집권화와 행정 통제 및 명령 체제가 등장하였다. 재원은 낭비되고 무계획적인 캠페인주의가 판을 쳤다. 제2차 5개년 계획은 1차 계획 때보다도 목표가 크게 하향 조정되었으나, 스탈린의 주장과는 달리 결과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sup>21)</sup>

사실, 소련 경제를 위로부터 철저히 통제되는 중앙집중적인 체제로 바라보는 렐추크의 시

19) 1차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렐추크의 이와 같은 평가도 지나치게 호의적인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 노브는 일찍이 1960년대 말에 소련 당국이 이 안을 공식적인 발전 계획안으로 채택하기 전에 심사용으로 두 가지 초안, 즉 상대적으로 수수한 발전을 계획한 “기본안”과 이보다 훨씬 야심적인 “최적안”을 계획 작성 기관에게서 제출받았음을 확인한다. 당국은 이 중 최적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초안은 서방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일찌감치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알렉 노브(1998), 『소련경제사』, 창작과 비평사, 162-165쪽을 참조. 알렉 노브의 이 책은 1969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20) 스탈린은 그 후에도 “공업 발달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을 계속 촉구하였다고 경제학자 오토 라찌스는 1989년에 쓴 한 논문에서 지적한다. Otto Latsis(1989), “Perelom,” v V. M. Podugol'nikov, red., *Surovaia drama naroda: Uchenye i publitsisty o prirode stalinizma*, Moskva, s. 103.

21) V. S. Lel'chuk(1989), “Kurs na industrializatsiiu i ego osushestvlenie,” v A. T. Kunkul'kin, red., *Stranitsy istorii sovetskogo obshestva: Fakty, problemy, liudi*, Moskva, ss. 198-220; 같은 저자(1993), 「1926-1940: 완성된 산업화인가, 산업적인 도약인가?」, 『다시 쓰는 소련 현대사』, 157-201쪽.

각은 당시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널리 공유되었다. 저명한 경제학자 뽀뽀프(G. Kh. Popov)는 소련 학자들 중 처음으로 이 스탈린 체제 하의 경제를 “행정-명령 체제”라고 적절하게 명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체제의 기반은 결정의 중앙집중화로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들, 특히 스탈린의 지시들을 정확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실행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 체제는 생산 과정 전체를 위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이다. 그렇지만 이 행정-명령 체제는 스탈린 독재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체제는 스탈린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의 사망으로 테러의 공포가 사라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소련 경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sup>22)</sup>

스탈린주의적 공업화에 의해 확립된 행정-명령 체제가 소련 경제의 기반을 이루면서 오늘날 소련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배태시켰고, 또 이 체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체제를 역사 속에서 모색해 보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련 지식인들은 거의 모두 스탈린의 “대전환” 속에서 폐기된 NEP 체제에서 스탈린 체제에 대한 대안을 찾았다.<sup>23)</sup> 경제학자 슈멜레프(Nikolai Shmelev)는 일찌감치 NEP의 경제적 활력에 주목한 소련 학자들 중 한 명이었다. 1987년에 발표한 한 글에서 그는 1921년에 총체적인 정치 및 경제의 위기 속에서 레닌이 도입한 NEP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NEP는 경제 사상에서 하나의 혁명을 이루었다. 이 때 처음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NEP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과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의 기본 원리를 정식화하려는 최초의 노력이었다. NEP는 근로 인민의 창조적 에너지를 억압하기보다는 동원할 체제로의 이행, 즉 ‘행정적 사회주의로부터’ ‘독립 재산제적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나타내는 것이었다.”<sup>24)</sup>

인민의 “창조적 에너지”를 동원하는 데 성공한 NEP는 공업은 물론이고 농업도 포함하여 소련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역사가 나우모프<sup>25)</sup>(V. P. Naumov)에 따르면, NEP는 단기간에 농업 경제를 회복시키고 공업 생산을 늘렸다. NEP가 도입된 직후인 1922-23년에는 기근이 종식되는 한편으로 1925년에는 이미 파종 면적과 가축 수가 전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또한 1921-1924년 동안에는 국영 기업의 총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에트 정권의 버팀목이 될 노동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sup>26)</sup> 경제학자 셸류닌은 이러한 경제적 성과 외에도 NEP는 “공공 생활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성과도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NEP 시기 동안 혁명적 법정이 일반 법정으로 대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법치가 확대되면서 혁명과 “전시 공산주의” 시기 동안 만연하였던 강압과 폭력이 사라졌던 것이

22) Gavriil Kh. Popov(1987), “S tochki zreniia ekonomista (O romane Aleksandra Beka Novoe naznachenie),” *Nauka I zhizn'*, No. 4, ss. 54-65.

23) 서방에서 NEP 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카에 의해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E. H. Carr(1950-3), *The Russian Revolution 1917-1923*, Vols. 1-3, Macmillan; idem(1954), *The Interregnum 1923-1924*, Macmillan; idem(1958-64), *Socialism in One Country 1924-1926*, Vols. 1-3, Macmillan; idem(1969-78), *Foundations of a Planned Economy 1926-1929*, Vols., 1-3, Vol. 1 parts 1 & 2 with R. W. Davies, Macmillan을 볼 것.

24) Nikolai Shmelev(1991), “Advances and Debts,” in Alexander Dallin and Gail W. Lapidus, eds., *The Soviet System in Crisis: A Reader of Western and Soviet Views*, Westview Press, p. 292.

25) 스탈린 테러에 관한 전문 역사가인 Oleg V. Naumov와 다른 사람임.

26) V. P. Naumov(1989), “NEP: Sut', opyt, uroki,” v V. G. Afanas'ev i G. L. Smirnov, red., *Urok daet istoriia*, ss. 102-104.



다.<sup>27)</sup>

스탈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NEP에 대한 소련 지식인들의 관심은 당대의 소련지도자로서 부하린(N. I. Bukharin)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도 나타났다. 왜냐하면 부하린이야말로 당대 소련 지도자들 중에서 NEP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지도자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 2월 부하린이 공식적으로 복권되기 전에 소련의 한 대중잡지는 부하린 미망인과의 인터뷰를 게재함으로써 그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부하린은 인간적이고 총명한 인물로 묘사되었고, 스탈린 테러의 희생자로서 현실에서는 패배하지만 역사에서는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는 미망인 기억 속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극히 비감하기까지 하였다.<sup>28)</sup>

부하린에 대한 전기도 곧 출간되었다. 소련 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단행본 성격의 본격적인 전기는 출간되지 않았지만,<sup>29)</sup> 1988년에는 역사가들이 쓴 논문 형태의 짧은 전기 두 편이 저명한 역사학 잡지에 실렸다. 1888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처형된 부하린의 생애를 연대기순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두 편의 논문은 부하린이 레닌과 때때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내전 기간 동안 좌익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등 당 규율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긴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부하린은 NEP의 옹호자이자 이른바 노농 동맹(smychka)의 지지자로서 레닌의 유업을 계승한 당내 이론가로 묘사된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부하린의 방식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부하린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즉 레닌이 역설하였듯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농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계급 갈등이 아니라 계급 간의 평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0)</sup>

하지만, 이처럼 부하린의 사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호의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역사학자 보르쥬코프(G. A. Bordiugov)와 꼬즐로프(V. A. Kozlov)는 좀더 냉정하게 부하린 대안을 검토하였다. 그들은 1920년대 말의 소련 사회의 위기와 관련하여 부하린 대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필자들에 따르면, 1927-28년에 곡물조달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전에 좌익 반대파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이 위기에 전혀 대비가 없는 상태였다. 위기는 “예상치 않은” 것이었으며, 스탈린과 부하린으로 이루어진 당 지도부는 NEP 체제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해결책만이 있었을 뿐이다. 즉 부하린적 대안은 비상조치를 사용하지 말고 가격 정책으로 위기를 해결하자는 것이었고, 스탈린적 대안은 비상조치는 물론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급속한 집단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필자들이 보기에 두 대안 모두 당시로서는 “최적이 아니었다.” 부하린적 대안은 당장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곧 또 다른 새로운 위기를 불러

27) Vasili Seliunin(1989), “Roots,” in Donald J. Raleigh, ed., *Soviet Historians and Perestroika: The First Phase*, M. E. Sharpe, p. 180.

28) “He Wanted to Make Life Over Because He Loved It: An Interview with Bukharin's Widow,” in *ibid.*, pp. 209-227. 원문은 1987년 『등불』 지에 실렸다.

29)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스티븐 코헨이 1973년에 집필한 기념비적인 부하린 전기가 1989년에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되었을 뿐이다. Stephen Cohen(1973), *Bukharin and the Bolshevik Revolution: A Political Biography 1888-1938*, Knopf를 볼 것.

30) Leonid K. Shkarenkov(1988), “Nikolai Ivanovich Bukharin,” *Voprosy istorii*, No. 7, ss. 59-78; N. V Pavlov i M. L. Fedorov(1988), “Nikolai Ivanovich Bukharin,” *Voprosy istorii KPSS*, No. 10, ss. 73-87.

일으킬 가능성이 컸고, 스탈린적 대안은 대단히 위험해서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당 지도자들은 NEP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표가 있는 스탈린적 대안을 지지하였다.<sup>31)</sup>

#### 4. 스탈린 테러: 감옥과 강제수용소

고르바초프의 집권 이후 스탈린 체제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개혁을 지지하는 글라스노스찌 잡지들은 특히 1987년 이후 스탈린 시대에 자행된 대테러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실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테러에 대한 폭로는 그 해 8월 메모리알(Memorial)이라는 민간단체가 조직되어 테러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 건립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11월에는 고르바초프가 혁명 70주년 기념일 연설에서 스탈린에 의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공식 인정한 뒤, 더욱 과감하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까지는 육체적·정신적 고문이 심문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이 공개적으로 밝혀졌고, 스탈린 체제의 테러 희생자가 되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비참한 실상이 주로 동부 시베리아에 있던 따슈켄트, 따이췌프, 풀리마 수용소들을 중심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1988년에 『신세계』지에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와 더불어 서방 세계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수용소 문학인 바를람 샬라모프(Varlam Shalamov)의 『풀리마 이야기』<sup>32)</sup>가 일부 게재되었을 때 수용소에 대한 논의가 글라스노스찌 하에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89년까지는 스탈린 숙청 생존자의 회고록들이 또한 대량으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서방에서 이미 대표적인 수용소 증언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저자들인 나제즈다 만델스탐(Nadezhda Mandelstam)과 에브게니야 긴즈부르크(Evgeniya Ginzburg)의 회고록도 시장에 나와 대중적으로 읽히게 되었다.<sup>33)</sup>

한편, 서방 세계에서는 콘퀘스트 등에 의해 일찍이 그 전모가 나름대로 밝혀져 있었으나<sup>34)</sup> 소련의 공식 당사에서는 여전히 채워야 할 “빈 곳”으로 남아 있던 정치적 거물들에 대한 테러 사건들도 폭로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88년에 『모스끄바 뉴스』는 이른바 1932년에 일어난 류찐(Mikhail Riutin)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였다. 1928-29년에 스탈린이 좌익으로 선회했을 때 부하린을 지지했던 모스끄바 당 서기 류찐은 1930년대 초 강화되는 스탈린의 독재정치에 반발하여 일부 인사들과 함께 스탈린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이른바 “류찐 강령”을 작성하였다. 소련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강령의 존재를 몰랐으나 스탈린은 이를 알고 있었고, 분노한 스탈린은 그의 처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국원 다수는 이에 반대하였고, 스탈린은 그를 15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류찐은 1937년 무렵에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가족들도 부인과 두 아들 등 딸 한 명

31) G. A. Bordiugov i V. A. Kozlov(1988), “Povorot 1929 goda i al'ternativa Bujharina,” *Voprosy istorii KPSS*, No. 8, ss. 15-33. 그 외에도 Nicholas N. Kozlov(1990), “War Communism, the New Economic Policy, and Bukharin's Theory of the Transition to Socialism,” in Nicholas N. Kozlov and Eric D. Weitz, eds., *Nikolai Ivanovich Bukharin: A Centenary Appraisal*, Praeger, pp. 107-128도 참조.

32) Varlam Shalamov(1995), *Kolyma Tales*, Penguin Books, 2nd ed. 초판은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980년과 1981년에 각각 한 권씩 출간되어 서방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33) Rosalind Marsh(1995), *History and Literature in Contemporary Russia*, pp. 84-85.

34) R. Conquest(1968), *The Great Terror: Stalin's Purges of the Thirties*, Macmillan. 콘퀘스트의 이 저작은 비록 반소련적인 정치적 편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비단 정치적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군대, 소수민족, 문화계 인사 등 당시 소련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던 스탈린 테러 모습 전체를 세밀히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탈린 테러에 관한 포괄적인 고전적 연구라 할 만하다. 1990년에 *The Great Terror: A Reassessment*라는 수정된 제목으로 증보되어 다시 출간되었다.

을 빼고는 모두 테러의 제물이 되었다. 류젠은 유일하게 생존한 딸의 몇 십 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1988년 6월에야 마침내 복권되었다.<sup>35)</sup>

스탈린 시대에 암살된 또 다른 1930년대의 저명한 정치 지도자는 고르바췌프 하에서 당국의 공식 조사 대상이 되었다. 레닌그라트 당수로서 정치국원이었던 끼로프(Sergei Kirov)는 1930년대 동안 당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스탈린의 가장 유력한 정적으로 떠올랐다. 그는 1934년 12월 한 암살범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당시의 공식 조사는 암살범 단독의 범행으로 발표되었으나 서방의 많은 학자들은 끼로프의 암살에 스탈린이 직접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흐루시췌프 또한 스탈린의 연루를 의심하고 이를 조사하였다. 이 사건은 빼레스뜨로이까 동안 정부 주도로 다시 조사를 벌였으나 또 다시 암살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하지만 이 조사는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건은 여전히 스탈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sup>36)</sup>

류젠이나 끼로프 같은 거물 정치인이나 저명한 사회 혹은 문화계 지도자 말고도 계층이나 인종 집단 전체에 가해진 테러도 글라스노스즈의 바람을 타고 광범한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탈콜라크화와 관련하여 농민에게 가해진 억압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소수 민족에게 가해진 억압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특히 역사학자 부가이(N. F. Bugai)는 1989년부터 새로 공개된 문서들을 이용하여 스탈린 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추방된 소수민족들에 관한 일련의 학술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sup>37)</sup> 예를 들어 그는 1990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북까프카스의 체첸인과 인구쉬인들이 왜 소련 당국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에 대응하여 1944년에 소련 당국이 그들을 어떻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게 되었는지를 밝혀냈다.

부가이는 소련 당국이 추방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다각도로 설명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스탈린 체제를 포함하여 소련 체제의 진행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우선 소련 중앙 당국에 의한 지방 자치 기관으로서의 소비에트 활동에 대한 억압이 192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고 이는 30년대에 들어서 “군사-명령 지배 방식”으로 굳어졌다. 둘째,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와 강요 금지라는 “레닌주의적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농민들의 광범한 불만을 샀다. 특히 산악 지형이나 불편한 운송 등 특수한 지리적 환경 속에 있는 고산지대에서의 축산업은 개인 영농이 오히려 유리하나 당국은 유목 활동을 “완전히 반동적”인 영농으로 간주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민들의 삶의 주요 일부였던 종교 문제에서는 교육적 방식으로 지방민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사원을 강제로 폐쇄하는 등 종교 활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리고 중앙의 지침에 항의하는 지역 당 관리들을 대량으로 체포하는 등 대대적으로 억압하였다.

이러한 억압의 결과는 1930년 대 동안 지속된 지방민들의 봉기였다. 지방민들은 당과 소비에트 관리들을 공격하거나 가축을 비롯한 농장의 재산들을 약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 인구쉬인과 체첸인들을 비롯하여 소수의 산악 주민들이 독일군의 침공에 협력하여 소련군에 맞섰다. 이들은 기존의 봉기 세력과 힘을 합쳐 1942년까지 좀더

35) Alec Nove(1989), *Glasnost' in Action*, p. 82.

36) R. W. Davies(1997), *Soviet History in the Yeltsin Era*, Macmillan, pp. 156-158.

37) 1991년까지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Nikolai F. Bugai(1989), “K voprosu o deportatsii narodov SSSR v 30-40 kh godakh, *Istoriia SSSR*, No. 6이다. 이 논문에서 부가이는 소련 내 독일인, 칼미크인, 북까프카스인, 크림인 등 소수민족들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스탈린에 의해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어떻게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 당하였는지 그 경과를 개괄한다.

큰 규모의 반체제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주로 집단 농장과 국영 농장에 큰 해를 끼치고, 상당수의 당과 소비에트 관리들을 살해하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많은 지방민들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소련 당국에 협력하였으나, 이 지역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을 격퇴하고 공세로 돌아선 1943년부터 소련 당국은 체첸인과 인구쉬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거의 30만 명에 이르는 지방민들을 추방하기로 하는 계획은 1943년 말에 완성되었으며, 이듬 해 2월부터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하여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추방민들은 까자흐, 우즈벡, 따지끄, 키르끼스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분산되었으며 그들 중에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들과 소련군 제대자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실제로 추방된 체첸인과 인구쉬인들은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8)</sup>

한편, 글라스노스찌 하에서 제한적이거나 새로 공개된 문서 덕분에 학자들은 스탈린 테러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발 빠르게 행동한 학자 중의 한 명은 역사학자 쟌스꼬프(V. N. Zemskov)였다. 쟌스꼬프는 1991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연속 발표된 논문에서 1930-40년대 동안 강제수용소(Gulag)에 수감된 사람들의 총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새로 발굴된 통계에 비추어볼 때, 1939년 말에 감옥과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수가 900만 명에 이른다는 코헨과 콘퀘스트 등 일부 서방학자들의 평가는 잘못되었다. 뿐만 아니라 1937-1950년 동안 수용소에 연평균 800-1,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련 학자 찰리꼬프(V. A. Chalikov)의 주장이나 1953년 스탈린이 죽었을 때 1,000만 명의 수감자가 있었다고 말한 흐루시초프의 주장, 그리고 1937-38년 동안 500-700만 명이 체포, 억압되어 그 중 대부분이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메드베제프(R. A. Medvedev)의 주장도 과장된 것이다. 실제로 비밀 통계는 1937-38년에 체포된 사람은 100만 명 이하이며,<sup>39)</sup> 1939년 1월 1일 현재 170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만이 굴라그에 수감되어 있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수용소의 수감자 수는 실제로는 1934-1953년 기간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1950년에도 260만 명이 되지 않았다. 1939-194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의 수는 1940년에 43만 명에 이른 것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 30만 명 이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총 수 외에도 다각도의 측면에서 수감자들의 신원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수감자들의 절반 정도는 NKVD(내무 인민위원부)의 재판을 받았으며, 그 중 상당수는 초법적 숙청 기관인 트로이카(troika)의 약식 재판을 거쳤다. 또한 인종별로는 러시아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육 정도는 초등 교육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90% 이상이었으나 1945년 1월에는 여성이 24%를 차지하는 등, 2차 세계 대전 동안과 그 이후에는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리고 형기는 대부분이 5년 이상의 장기였으며, 그 중 대다수는 5-10년 동안의 형기를 복역하기로 되어 있었다.<sup>40)</sup>

38) N. F. Bugai(1990), "Pravda o deportatsii chechenskogo i ingushskogo narodov," *Voprosy istorii*, No. 7, ss. 32-44.

39) 최근에 발굴된 문서는 1937-38년 동안 약 150만 명이 NKVD에 의해 체포되었음을 보여준다. Marc Jansen and Nikita Petrov(2002), *Stalin's Loyal Executioner: People's Commissar Nikolai Ezhov, 1895-1940*, Hoover Institution Press, p. 104.

40) V. N. Zemskov(1991), "GULAG (Istoriko-sotsiologicheskii aspekt),"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ia*, No. 6, ss. 10-27; No. 7, ss. 3-16. 그 외에도 1991년 같은 해에 발표된 동지자의 "Zakliuchemye, spetsposelentsy, ssyl'noposelentsty, ssyl'nye i vysslannye (Statistiko-geograficheskii aspekt)," *Istoriia SSSR*, No. 5, cc. 151-165와 "'Kulatskaia ssylka' v 30-e gody,"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ia*, No.

테러의 규모를 확정하려는 소련 학자들의 노력은 1937년 소련 인구센서스가 공개됨으로써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이 센서스는 공식적으로는 조사 당대에 주요한 결함 때문에 폐기되었다고 주장되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 내용이 집단화와 테러로 타격을 받은 스탈린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공개가 금지되었다고 믿어왔다. 따라서 센서스가 정확하다면, 비록 1937-1938년의 “대테러”를 포함한 스탈린 집권 후반기의 테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겠지만, 농업 집단화와 1932-33년의 기근,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스탈린 숙청이 강도를 더해 가던 1930년대 초반의 수용소와 감옥의 현황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갖는 1937년 센서스는 1990년에 일련의 역사가들에 의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들은 이 센서스가 조사 방법에서 약간의 결함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확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1926년의 인구 센서스의 도움을 받아 1926-36년 동안의 인구 성장률은 10%를 약간 상회하였는데, 이것은 그 이전 인구 성장률보다 훨씬 낮았음을 밝혀냈다. 일부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불가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은 많게는 20%, 적게는 10% 이상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는 물론 집단화와 대기근, 그리고 공업화로 인한 주민 사망 및 유출 등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sup>41)</sup>

## 5. 제2차 세계대전: 불가침 협정, 숙청, 독소전쟁

베레스뜨로이가 이전 소련의 공식 역사에서 독소전쟁은 “대원수” 스탈린의 지혜로운 지도 하에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영웅적으로 파시스트 독일군을 물리친 “대조국 전쟁”이었다. 하지만 글라스노스찌 하에서 스탈린과 그 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체제 선전적 관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1941년 6월에 시작하여 1945년 5월에 끝난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은 통틀어 최소 2,0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국토의 주요 지역 전부가 거의 황폐화되었다. 이제 이러한 엄청난 피해는 넘쳐나는 증언과 새로 개방되는 문서 앞에서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선 1939년 8월 독일과의 불가침 협정을 가져온 전쟁 직전의 스탈린의 외교 정책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하지만 서방과의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실패로 돌아간 뒤 뺏어진 이 협정 자체에 대해서는 비록 일각에서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소연방과 전 세계에 큰 해악을 초래했다고 주장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소련에 도움이 되었다는 견해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역사가 야꾸셰프스키(A. S. Yakushevskii)는 다음의 이유로 독소협정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첫째, 협정은 소련이 독일 및 일본과 동시에 두 개 전선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힘든 상황을 모면시켜 주었다. 둘째, 협정으로 반코민테른 전선은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독일과의 동맹을 모색하던 일본에게 독소협정은 전혀 예기치 않은 것이었다. 셋째, 협정은 소련에 반대하여 독일, 영국 및 프랑스를 결집시키려는 “뮌헨협정주의자들”의

10, ss. 3-21도 참조. 이 잭스코프 논문들은 문서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실증적인 연구들로서 그 서방 학계에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스탈린 테러 규모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된다. J. A. Getty, G. Rittersporn and V. Zemskov(1993), “Victims of the Soviet Penal System in the Pre-war Years: a First Approach on the Basis of Archival Evidence,” *American Historical Review*, October, pp. 1017-1049를 보라.

41) Iurii A. Poliakov, Valentina B. Zhiromskaia i Igor' N. Keselev(1991), “Polveka molchaniia (Vsesoiuznaia perepis' naseleniia 1937 g.),”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ia*, No. 6, ss. 3-25; No. 7, ss. 50-70; No. 8, ss. 30-52.

기도를 좌절시켰다. 끝으로, 협정 체결의 결과 소련은 1939년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2년 동안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단지 스탈린의 오류는 그가 지나치게 독소협정을 신뢰하여 1941년 전쟁 발발 직전까지도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데 있을 뿐이었다.<sup>42)</sup>

사실 스탈린이 히틀러를 과도하게 신뢰한 대가는 1941년 6월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을 때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곧 바로 드러났으며, 이는 고르바초프 시대 역사가들에 의해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개전 첫 3주 동안 소련군은 병력 85만 명과 6,000대의 탱크, 3,500대의 전투기를 상실했다고 한다면, 독일군은 10만 명의 병력과 1,700대의 탱크 그리고 950대의 전투기를 잃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개전 초기 소련군이 참패를 당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 직전까지 군대 내에 숙청의 광풍이 몰아쳐 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병력을 적절히 통솔할 유능한 군 지휘관들이 경험의 일천한 장교들로 대체되었기 때문이었다.

폴리쉬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1934년의 제17차 당 대회에 참석한 733명의 최고 사령관과 정치부원(여단장과 여단 인민위원에서 소연방 원수에 이르는) 중 579명이 테러의 제물이 되었고 154명만이 붉은 군대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sup>43)</sup> 역사가 야쿠포프(N. M. Iakupov)의 연구는 좀더 세밀하다. 새로 공개된 문서에 기반을 둔 그의 연구는 군대 내 테러의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테러가 당 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던 군 인사뿐만 아니라 일선의 장교들에게까지도 광범하게 그 축수를 미쳤음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문서에 의하면, 1937년 1월 1일 현재 소련 육군의 경우 사령관과 감독관 및 정치부원들은 총 206,250명이었고 그 중 164,309명이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받았다. 1937-1938년 동안 군을 휩쓴 테러의 물결은 국방 인민위원부 산하 군 기관과 군사학교 및 후방의 군 기관들에 근무하는 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즉 1937년 11월까지 이들 중 정치부원을 제외한 사령관과 감독관만 13,811명이 해직되었으며, 해직된 사람 가운데 3,776명은 체포되었다. 일부 지구는 특히 군 사령관 중 대부분이 해직되는 등 피해가 컸다. 예를 들어, 수도 방위를 담당하는 모스크바 군 지구의 경우 11월까지 “100%의 군단 사령관, 73%의 사단 사령관, 53%의 사단 본부장, 75%의 여단 사령관, 50%의 여단 본부장, 38%의 연대 사령관이 교체되었다.” 이에 놀란 국방 인민위원부는 대규모의 숙청이 군의 전투력과 정치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령관의 해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급히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군 숙청은 1938년에도 대규모로 계속되었다.<sup>44)</sup>

42) A. S. Iakushevskii(1988), “Sovetsko-germanskii dogovor o nenapadenii: Vzgliad cherez gody,” *Voprosy istorii KPSS*, No. 8, ss. 94-96. 역사가 볼코고노프 역시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단지 그는 불가침 협정 체결 한 달 뒤인 1939년 9월 말에 맺어진 독소 친선 및 국경 조약이 소련이 그 전에 발표한 반과시스트적 이데올로기 선언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Alec Nove(1989), *Glasnost' in Action*, p. 47을 보라. 군사사(軍史家) 폴리쉬는 소련군이 2년 동안의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독소협정 덕분이 아니라 독일이 폴란드를 분쇄하고 북부와 남부 및 남동부 유럽 국가들을 동맹에 끌어들이며 프랑스와 영국을 처리하고 이탈리아 및 일본과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V. M. Kulish(1989), “U poroga voina,” v A. T. Kunkul'kin, red., *Stranitsy istorii sovetskogo obshestva*, ss. 295-296을 볼 것. 서방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스탈린의 무모한 독소협정과 히틀러에 대한 그의 과도한 신뢰가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대재앙을 초래했음을 지적해왔다. 예를 들어, Alexander Werth(1964), *Russia at War 1941-1945*, Carrol & Graf Publishers의 특히 1부를 보라.

43) V. M. Kulish(1989), “Ob urokakh i pravde istorii,” v A. T. Kunkul'kin, red., *Stranitsy istorii sovetskogo obshestva*, s. 283.

44) N. M. Iakupov(1991), “Stalin i Krasnaia Armiia (Arkhivnye nakhodki),” *Istoriia SSSR*, No. 5, ss. 170-175. 서방 학계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에 앞서 인용한 콘퀘스트의 저작에서 군에 대한 테러의 실상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었다. R. Conquest(1968), *The Great Terror*의 7장 참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주제로 씌어진 또 하나의 논문은 1937-38년의 군 숙청을 누가 어떤 명목으로 자행하였는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숙청은 스탈린과 당시 국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자 육군 원수였던 보로실로프(Kliment Voroshilov), 그리고 비밀경찰 NKVD가 주도하였다. 이들은 1937-38년 동안 소련 군대 내의 각종 기관에서 “군사-SR(사회주의 혁명가 당) 조직”, “테러 집단”, “간첩 및 파괴 조직”, “군주주의자-장교 조직”, “뜨로즈끼 집단”,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등 각종 “민족주의 조직” 등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조직들을 “가차 없이 뿌리 뽑을 것”을 선동하였다.<sup>45)</sup>

게다가 스탈린은 무차별적인 테러를 통해 전쟁 전에 소련 군대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전 후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군사 작전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주요 작전의 실패를 가져왔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소련 당국은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스태프카(Stavka)라고 약칭되는 최고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스탈린이 의장이 된 이 조직은 소련군 최고 지도자들과 국가 방위 위원회(GKO) 주요 위원들이 참여하였지만 “진정한 집단 지도 기관”은 아니었다. 사실 전쟁 동안 스탈린은 권력을 거의 독점하였다. 그는 스태프카 의장직과 함께 국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당 중앙 위원회 총서기와 인민위원회의 의장, 그리고 국가 방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였다. 역사가 쿠마네프(G. A. Kumanev)는 당시 군 최고 지도자 중의 한 명이었던 원수 주코프(G. K. Zhukov)의 말을 빌려 스탈린의 전횡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쟁 초에 스탈린과 함께 일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무엇보다 그는 당시의 현대전 수행의 수단과 방법론 및 형태들을 그릇되게 연구, 해명했었다.... [스탈린은] 모든 것을 지휘하고 명령하였으며, 그의 말은 최종적인 것이었고 불평의 말은 없었다.”<sup>46)</sup> 그렇다고 스탈린에로의 권력 집중이 전시에 필요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그의 부하들이 각자의 맡은 바 직책에 따라 하위 단계에서 그의 결정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관여했지만(예를 들어, 국방 인민위원회에만 16명의 스탈린 부관들이 집행에 관여했다), 정작 그 중 어느 누구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결정되어 집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스탈린의 독재적인 정책 결정 습관에 변화가 온 것은 1942년 9월에 개시된 스탈린그라트 전투 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스탈린은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참모장과 전선의 주요 지휘관 등 주위 인사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sup>47)</sup>

그렇다면, 개전 초기의 레닌그라트 포위 공세를 비롯한 북부 전선의 급속한 붕괴와 1942년의 남부 전선에서의 대패배를 포함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련이 입은 인명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글라스노스찌 동안에 독소전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 문제도 소련 학자들 사이에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확정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쿠마네프는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총 2,700만 명의 소련 국민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48)</sup> 이는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2,00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

45) Oleg F. Suverinov(1991), “Narkomat oborony i NKVD v predvoennye gody,” *Voprosy istorii*, No. 6, ss. 26-35.

46) G. A. 쿠마네프(1993), 「어려운 시련의 포화 속에서(1941년 6월 - 1942년 11월)」, V. P. 드미트렌코 외, 『다시 쓰는 소련 현대사』, 271쪽에서 재인용.

47) V. M. Kulish(1989), “Ob urokakh i pravde istorii,” ss. 290-291.

48) G. A. 쿠마네프(1993), 「어려운 시련의 포화 속에서(1941년 6월 - 1942년 11월)」, 339쪽. 꼬즐로프는 4,000만 명의 사망자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수자라고 평가된다. V. I. Kozlov(1989), “O liudskikh poteriakh Sovetskogo soiuza v Velikoi Otechestvennoi voiny 1941-1945 godov,” *Istoriia SSSR*, No. 2를 볼 것.

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명 손실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가하였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 소콜로프(B. Sokolov)는 민간인을 제외한 소련군만의 손실을 계산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련군은 2차 세계대전 전 기간 동안 총 3,060만 명을 동원하였다. 이중 약 850만 명이 전사하였고 부상으로 250만 명이 더 사망하였다. 1944년 5월까지 전쟁 포로가 된 병사는 총 580만 명이었고, 이중 330만 명이 포로 생활 중에 사망하였다.<sup>49)</sup> 전쟁 전 기간을 통해 소련군은 독일군과 그 동맹군 전부를 합친 것보다 3.7배 더 전사하였다. 끝으로 스탈린의 무모한 베를린 점령 계획으로 10만 명의 소련군이 전쟁 막바지에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50)</sup>

## 6. 스탈린주의의 기원: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

마지막으로 스탈린 시기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하여 고르바초프 시기 동안 소련 문필가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된 또 하나의 쟁점은 스탈린주의의 뿌리에 관한 문제였다. 농업 집단화로 러시아 농업을 황폐화하고 국가 주도의 폭력적 공업화로 행정-명령 체제라는 기형적인 산업 체제를 영속화하며 무자비한 테러로 수많은 자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쟁 대비를 불철저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완전히 대참화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스탈린주의는 어디서 기원하는가? 다시 말해 어떤 역사적 요인들이 스탈린 체제라는 기형적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둘러싸고 소련 지식인들은 처음에 크게 두 패로 나뉘어졌다. 일단의 지식인들은 스탈린 체제의 성립을 레닌주의의 탓으로 돌렸다. 다른 지식인들은 레닌주의는 정당하나 사회주의 혁명 이후 그 이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요인들, 특히 스탈린 개인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스탈린주의가 탄생했다고 보았다. 이 논쟁은 뼈데스트로이카 시기 동안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와 맞물려 실천적인 성격을 띠었다. 즉 레닌주의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쪽은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되기는 하였지만 일정한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회생 가능한 체제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레닌주의에서 스탈린주의의 맹아를 본 사람들은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였고, 스탈린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사회는 러시아의 역사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질적 체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이 논쟁은 현실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도덕적 성격도 띠었다. 다시 말해 논쟁은 단지 지식인들의 학술적 토론의 성격을 벗어나 강한 가치 판단이 개입된 책임론으로까지 번졌던 것이다. 즉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를 가져온 이 스탈린주의의 확립에 대해 누가 혹은 무엇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단적으로 스탈린인가, 혹은 레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나 세력인가?

처음에 논쟁은 레닌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이 우세한 것 같았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의 11월의 10월 혁명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스탈린의 주요 정책들을 비난하면서도 10월 혁명을 인류 해방의 혁명으로서, 레닌주의를 그 혁명을 만들어내고 혁명이 목표로 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서 칭송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사회주의 체제

49) 전쟁이 끝난 뒤, 독일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송환된 소련군 병사들 중 상당수가 투옥되거나 다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동안 사회의 냉대를 받아오던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던 움직임과 관련되어 찬반 논쟁이 글라스노스찌 시기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R. W. Davies(1989), *Soviet History in the Gorbachev Revolution*, pp. 111-112를 볼 것.

50) Alec Nove(1989), *Glasnost' in Action*, p. 49.



왜곡의 책임은 30년 전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스탈린에게 있었다.<sup>51)</sup> 많은 소련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고르바초프의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을 따르면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뚜렷이 대비시킨 것은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 미나예프(L. M. Minaev)는 1989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레닌의 정치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레닌을 찬양하고 스탈린을 비난한다. 그에 따르면, 레닌은 “정치 지도학의 진정한 창설자이다.” 정치는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 레닌에게 이 수많은 인간들은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존재로서 정치는 이러한 수백 만 대중들이 서로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사회관계와 대중들의 심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과정은 인식과 실천의 변증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완벽한 사상, 완벽한 이론이란 있을 수가 없었고 좀더 나은 인식으로 가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은 현실에 맞추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당 내에 비판과 자아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레닌주의의 적자라고 자임한 스탈린은 기본적으로 수백 만 대중들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사회주의란 그에게 “일반적인 것의 절대화이고 법과 범주와 개념들을 살아 있는 인간 위에 놓는 것이었다.” 이상은 너무나 중요하고 장엄해서 인간들의 실제 운명은 이상 앞에서는 아무런 중요성도 없었다. 예를 들어,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스탈린이 “불세비끼가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의 지도력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 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반 대중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은 자신이 제시한 이 이상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오류의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이 이상에 바탕을 둔 자신의 정책과 행동은 언제나 옳바르기 때문에 당이 할 일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뿐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렇지 않고 이 완벽한 이상을 의심하고 그것을 공개적 토론에 붙이자고 제안하는 일은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상에 수정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고의적인 파괴행위(vreditel'stvo)와 다를 바 없었다.<sup>52)</sup>

이처럼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엄격히 구분하고 스탈린주의를 레닌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상적인 측면에서만 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 무대에서도 레닌과 스탈린이 충돌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좀더 명확히 드러났다. 저명한 혁명사가 스파르체프(V. I. Startsev)는 이 점에서 선구적이다. 그는 서방 역사학자 모셰 르윈(Moshe Lewin)이 1960년대 말에 일찍이 “레닌의 마지막 투쟁”<sup>53)</sup>이라고 비감하게 명명했던, 사망 직전의 레닌의 활동을 통해 스탈린의 전횡적 행동을 조명하였다. 레닌이 뇌출혈로 병환 중이던 1922-1923년의 시기는 스파르체프가 보기에는 레닌이 스탈린과 트로츠키 등 당 중앙 위원회 내 지도자들 간의 분열과 스탈린의 권력 확대 및 인격 결함을 우려하는 가운데 스탈린을 총서기직으로부터 해임하기를 원한 시기였다. 스탈린의 정치 활동에 대한 레닌의 불만은 몇 가지 문제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문제는 소연방을 구성하는 문제로서 당시 민

51) M. Gorbachev(1987), *October and Perestroika*. pp. 7-38.

52) L. M. Minaev(1989), “Demokratiia, politika i pluralizm mnenii: Leninski uroki,” *Voprosy istorii KPSS*, No. 1, ss. 3-17.

53) Moshe Lewin(1968), *Lenin's Last Struggle*, Pantheon Books.

족문제를 책임지고 있던 스탈린은 독립적인 소비에트 공화국들을 러시아연방에 편입시키되, 그들에게는 자치 공화국의 권리만 부여하자는 계획을 제출하였었다. 이에 레닌은 이 계획을 소수 민족 공화국의 독립성을 억압하는 대러시아 소비니즘을 잘 보여주는 계획으로 간주하였다. 두 번째 문제 또한 대러시아 소비니즘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른바 “므지바니(B. Mdivani)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므지바니는 그루지야의 지도자로서 스탈린과 오르조니끼제(Sergo Ordzhonikidze)에 의해 “민족 일탈파”로 비난을 받았는데, 그루지야의 소연방 편입 과정에서 오르조니끼제와 충돌하여 그 그룹 중의 한 명이 그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레닌은 건강을 더욱 해칠 만큼 이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사건은 해외 무역 독점 문제였는데, 1922년 초반에 스탈린이 총서기로 있던 당 중앙 위원회는 일시적으로 독점을 일부 해제하였다. 레닌은 이 조치를 독점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스탈린을 불신하게 되었고, 1922년 말 이른바 “레닌의 유언”으로 알려진 일련의 구술 편지들을 통해 스탈린을 총서기직에서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중앙 위원회 위원들의 수를 늘려 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를 원하였다.<sup>54)</sup>

한편, 스탈린주의를 레닌주의로부터의 일탈로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레닌주의에서 스탈린주의의 맹아를 찾아 볼 수 있다는 대담한 주장도 강력히 개진되었다. 가장 본격적인 이런 종류의 주장은 경제학자 셸류닌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8년에 발표되어 소련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한 논문에서 셸류닌은 예를 들어 스탈린주의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상품 생산과 사기업의 폭력적 절멸이 이미 레닌의 사상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10월 혁명 직후 씌어진 글들에서 국가에 잉여 곡물을 인도하지 않는 농민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가 보기에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대자본을 억압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잉여 곡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부를 늘리는 농민들이 바로 부르주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세비끼 정권이 1920년대 초에 곡물 강제 징발 등의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근과 황폐화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상품 생산과 그것을 수반한 시장을 파괴하지 않으면 10월 혁명 자체가 부르주아 혁명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닌에 따르면, 소비에트 농촌에서 이 상품 생산을 부추기는 제일 유력한 세력은 꼴라끄들로서 이들은 “가장 야만적이고 냉담하며 야수적인 착취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기생충들에 대처하지 않으면, 짜르와 자본가들의 복귀는 필연적이다.”

레닌의 사상에서는 농민에 대한 억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도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반대파의 억압을 위한 폭력은 10월 혁명 직후부터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반대파 언론기관은 “폭탄이나 기관총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당장 폐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이러한 폭력은 체카(Cheka)라는 상설적인 비밀경찰로 제도화되었고, 레닌은 그 수장으로 측근 제르진스끼(Felix Dzerzhinsky)를 임명하였다. 레닌은 체카에 대해 솔직히 말하였다. “근로 인민의 권력은 이와 같은 제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제르진스끼는 한 발 더 나아가 강제 수용소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이 강제 수용소는 단순히 체제 반대자들을 수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탈린 하의 수용소처럼 “체포된 사람들의 노동을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강압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신사 양반들을 위해서” 필요하다.<sup>55)</sup>

54) V. I. Startsev(1988), “Politicheskie rukovoditeli Sovetskogo gosudarstva v 1922-nachale 1923 goda,” *Istoriia SSSR*, No. 5, ss. 101-122. “레닌의 유언” 원문과 그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을 위해서는 V. P. Naumov(1989), “Leninskoe zaveshchanie,” v A. T. Kunkul'kin, red., *Stranitsy istorii sovetskogo obshestva*, ss. 88-121을 볼 것.

역사학자들인 보르주아프와 꼬즐로프도 스탈린주의의 기원을 레닌의 사상에서 일차적으로 찾았다. 그들에게 스탈린주의는 전시 공산주의의 방식을 경제 발전 방식에 적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스탈린의 행정-명령 체제의 뿌리로서 그들은 레닌의 국가 자본주의 독점 사상에 주목하였다. 레닌은 이미 1917년에 이렇게 말한다. “사회주의는 모든 인민을 위한 국가 자본주의 독점에 다름 아니다.” 보르주아프와 꼬즐로프가 보기에 국가 독점으로서의 레닌의 이 사상은 레닌에게서는 “개명된 협동조합 조직”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사상으로 발전하였지만, 스탈린에게서는 중앙집권화된 경영 체제와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이 특히 강조되면서 스탈린주의의 한 특징이 되는 경직된 중앙집권적 체제로 변질되었다.<sup>56)</sup>

일부 소련 지식인들은 스탈린주의의 기원 문제에서 레닌을 지나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짜쁘꼬(Alexandr Tsipko)는 계급투쟁이나 농민층에 대한 반대, 시장에 대한 혐오, 혁명적 폭력, 중앙집권적 생산의 극대화, 거대 형태에 대한 열정 같은 스탈린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마르크스의 사상에까지 소급하였다. 짜쁘꼬는 현 소련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야기한 것은 스탈린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자체라고 단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유토피아적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을 통한 인간적 목표의 달성을 요구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내적 모순을 강력히 비난하였다.<sup>57)</sup> 또 일부 지식인들은 스탈린주의의 뿌리를 소련 사회가 개인주의나 휴머니즘, 세속화, 법치 같은 유럽 문명의 핵심 가치들을 완벽히 포용하지 못한 데서 찾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색다른 해석은 스탈린주의를 러시아의 “동방”적 유산이 발현된 것으로 간주하는, 저명한 문필가 예브게니스마리꼬프(Evgenii Starikov)의 주장이었다. 스마리꼬프는 스탈린주의를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의 “병영적” 형태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강력한 공업화를 지향하지만 전체적인 일인 독재와 완벽한 국가 소유 및 대규모 착취적 관료 계급의 존재로 특징지어지는 “아시아적” 체제였다.<sup>58)</sup>

## 7.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글라스노스찌 시기 동안 소련 역사에 관해 발표되었던 글들 가운데 일부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당시 역사가들을 비롯한 소련의 지식인들이 스탈린 체제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글들의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그들의 역사 다시쓰기는 스탈린 체제에 관한 주요 주제들을 포괄하였다. 그들은 스탈린의 집권 이후 40년 이상 계속될 스탈린 체제의 이념적 기원을 논의하였고, 그 체제의 본격적 확립을 알린 폭력적 농업 집단화 및 공업화의 원인과 경과 및 결과를 재검토하였다. 또한 스탈린 체제라는 기형적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를 가능케 한 테러의 실상을 폭로하는 많은 글들이 씌어졌고, 스탈린의 “영묘한 지도” 하에 “사악한 파시스트 독일”의 침공을 물리친 전쟁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전되어 온 독소전쟁에 대한 재평가도 문필가들 사이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55) Vasilii Seliunin(1989), “Roots,” pp. 171-176.

56) Gennadi Bordiugov i Vladimir Kozlov(1989), “Vremia trudnykh voprosov (Istoriia 20-30-kh godov i sovremennaia mys’),” v V. G. Afanas'ev i G. L. Smirnov, red., *Urok daet istoriia*, ss. 236-238.

57) Alexandr Tsipko(1991), “Are Our Principles Any Good,” in Alexander Dallin and Gail W. Lapidus, eds., *The Soviet System in Crisis*, pp. 310-320; Elaine McClarand(1998), “The Politics of History and Historical Revisionism: De-Stalinization and the Search for Identity in Gorbachev's Russia, 1985-1991,” *The History Teacher*, Vol. 31, No. 2, pp. 159-160.

58) Elaine McClarand(1998), “The Politics of History and Historical Revisionism,” pp. 162-163.

클라스노스찌 시기 동안 이처럼 유례없이 뜨겁게 진행된 과거사 논의는 고르바초프 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sup>59)</sup> 순전히 소련 역사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학문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소련 역사학계는 이전에는 한계가 뚜렷했던 스탈린 체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이제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 지식인들은 거의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여기서는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 즉 스탈린의 개입에 의한 소련 역사학의 사실 왜곡이나, 스탈린 개인숭배 혹은 스탈린의 대러시아 국수주의에 의한 소수 민족의 억압 등을 포함한 갖가지 주제의 연구를 통해 스탈린 체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60)</sup>

하지만 이와 같은 주제의 자유로운 논의와 광범한 확장이 이 시기 연구의 질적 상태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스탈린주의의 역사에 대한 논의가 처음에 전문 역사학자가 아니라 문인이나 시사평론가 등 역사학 방법론에 덜 익숙한 문필가들에 의해 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스탈린주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서 특정 개념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만큼 논의는 실증적이라기보다는 사변적, “주관적”이었고 흑백논리로 현상을 극단적으로 양분하곤 하였다. 많은 논자들에게 스탈린주의는 그 기원이 어디에 있던 절대적인 악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스탈린주의는 성립 과정이나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이 향후 역사에 미친 영향 등이 현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복잡한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부정되어야 할 역사의 일탈 현상에 불과했다. 스탈린주의와 레닌주의의 관련성을 설명하더라도 많은 경우 레닌과 스탈린의 가혹한 행동 및 조치가 서로 일치함이 강조될 뿐이었다.

이와 같은 논의 수준의 전반적 저하는 소련 지식인들 사이에 마르크스주의 시각과 정치사 및 경제사적 시각이 지배적인 담론을 이룸에 따라 더욱 가중되었고, 소련 역사가들도 이 점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회사적 관점이나 문화사적 관점 등 아직 역사를 설명하는 다양한 시각들을 흡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소련 역사를 재검토하고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소련 역사가들은 주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대체로 서방의 역사가들이 설정해 놓은 논의들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꼴라끄 탄압 문제라든가, 1932-33년의 대기근 문제, 또 독소전쟁에서 스탈린의 역할 문제, 테러 문제, 부하린 대안에 대한 논의, 소련 역사에서 NEP의 의미 문제, 국가에 의한 폭력적 공업화 과정 등은 오래 전부터 서방에서 활발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논의들은 좀더 세련된 역사적 분석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부하린 대안에 관한 보르쥬고프와 꼬즐로프의 논문은 NEP 말기 소련 지도부가 봉착한 딜레마가 무엇이며, 부하린의 길과 스탈린의 길 등 그 딜레마를 타개할 정책적 대안들이 논리적 장점과 함께 현실적인 한계를 왜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또 일부 선구적인 역사가들의 경우 새로 공개되는 문서들을 적극 이용하여 기존의 알려진 주장들을 철저히 반박하거나 새로운 사실들을 공론화하는 데 훌륭한 솜씨를 발휘

59) 이 점에 관해서는 줄고(2005), 「스탈린 체제와 러시아의 과거청산」,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350-359쪽 참조.

60) 예를 들어, N. N. Maslov(1988), “‘Kratkii kurs istorii VKP(b)’-Entsiklopediia kul'ta lichnosti Stalina,” *Voprosy istorii KPSS*, No. 11; Eduard Batalov(1989), “Kul't lichnosti i obshchestvennoe soznanie,” v V. M. Podugol'nikov, red., *Surovaia drama naroda*; Viktor Zotov(1989), “Natsional'nyi vopros: Deformatsii proshlogo,” v *ibid*를 볼 것.

하였다. 스탈린 테러의 규모와 관련하여 진행된 쟁스꼬프의 논의는 이러한 작업의 좋은 예이다. 그는 그때까지 러시아 및 서방 학자들 사이에 뚜렷한 근거 없이 주장되던 테러 희생자들의 수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새로 발굴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 주장은 이후 러시아 및 서방 학계에서 테러의 규모를 둘러싼 폭발적인 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다. 나아가 1946-47년에 몰다비아와 우크라이나 지방을 휩쓴 기근을 본격적으로 다룬 볼코프의 연구도 새로운 주제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선구적인 연구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소수의 참신한 시각과 논의들이 이후 러시아 학자들로 하여금 스탈린 체제를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스탈린주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참고문헌

- 김남섭(2005), 「스탈린 체제와 러시아의 과거청산」,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328-359.
- 드미트렌코, V. P. 외(1993), 『다시 쓰는 소련 현대사』, 열린책들.
- 한정숙(1991), 「볼셰비키 혁명사가 크게 수정되고 있다」, 『역사비평』, 봄호, 79-106.
- Afanas'ev, V. G. i Smirnov, G. L.(1989), red., *Urok daet istoriia*, Moskva.
- Bordiugov, G. A. i Kozlov, V. A.(1988), “Povorot 1929 goda i al'ternativa Bujharina,” *Voprosy istorii KPSS*, No. 8, 15-33.
- Bugai, Nikolai F.(1989), “K voprosu o deportatsii narodov SSSR v 30-40 kh godakh,” *Istoriia SSSR*, No. 6.
- Bugai, Nikolai F.(1990), “Pravda o deportatsii chechenskogo i ingushskogo narodov,” *Voprosy istorii*, No. 7, 132-44.
- Iakupov, N. M.(1991), “Stalin i Krasnaia Armiia (Arkhivnye nakhodki),” *Istoriia SSSR*, No. 5, 170-175.
- Iakushevskii, A. S.(1988), “Sovetsko-germanskii dogovor o nenapadenii: Vzgliad cherez gody,” *Voprosy istorii KPSS*, No. 8, 81-96.
- Istoriia vsesoiuznoi kommunisticheskoi partii (bol'shevikov): Kratkii kurs*, Moskva, 1945.
- “Kollektivizatsiia: Istoki, sushchnost', posledstviia. Beseda za 《kruglym stolom》,” *Istoriia SSSR*, No. 3, 1989, 3-62.
- Kondrashin, Viktor V.(1991), “Golod 1932-1933 godov v derevniakh Povolzh'ia,” *Voprosy istorii*, No. 6, 176-181.
- Kozlov, V. I.(1989), “O liudskikh poteriakh Sovetskogo soiuzna v Velikoi Otechestvennoi voiny 1941-1945 godov,” *Istoriia SSSR*, No. 2.
- Kunkul'kin, A. T.(1989), red., *Stranitsy istorii sovetskogo obshestva: Fakty, problemy, liudi*, Moskva.
- Maslov, N. N.(1988), “Kratkii kurs istorii VKP(b)-Entsiklopediia kul'ta lichnosti Stalina,” *Voprosy istorii KPSS*, No. 11.
- Minaev, L. M.(1989), “Demokratiia, politika i pluralizm mnenii: Leninski uroki,” *Voprosy istorii KPSS*, No. 1, 3-17.

- Osokina, Elena A.(1991), "Zhertvy goloda 1933 goda: Skol'ko ikh (Analiz demograficheskoi statistiki TsGANKh SSSR)," *Istoriia SSSR*, No. 5, 18–26.
- Pavlov, N. V. i Fedorov, M. L.(1988), "Nikolai Ivanovich Bukharin," *Voprosy istorii KPSS*, No. 10, 73–87.
- Podugol'nikov, V. M.(1989), red., *Surovaia drama naroda: Uchenye i publitsisty o prirode stalinizma*, Moskva.
- Poliakov, Iurii A., Zhiromskaia, Valentina B. i Keselev, Igor' N.(1991), "Polveka molchaniia (Vsesoiuznaia perepis' naseleniia 1937 g.),"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ia*, No. 6, 3–25; No. 7, 50–70; No. 8, 30–52.
- Popov, Gavriil Kh.(1987), "S tochki zreniia ekonomista (O romane Aleksandra Beka Novoe naznachenie)," *Nauka I zhizn'*, No. 4, 54–65.
- Shkarenkov, Leonid K.(1988), "Nikolai Ivanovich Bukharin," *Voprosy istorii*, No. 7, 59–78.
- Startsev, V. I.(1988), "Politicheskie rukovoditeli Sovetskogo gosudarstva v 1922–nachale 1923 goda," *Istoriia SSSR*, No. 5, 101–122.
- Suverinov, Oleg V.(1991), "Narkomat oborony i NKVD v predvoennye gody," *Voprosy istorii*, No. 6, 26–35.
- Volkov, Ivan M.(1991), "Zasukha, golod 1946–1947 godov," *Istoriia SSSR*, No. 4, 3–19.
- Zemskov, V. N.(1991), "GULAG (Istoriko–sotsiologicheskii aspekt),"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ia*, No. 6, 10–27; No. 7, 3–16.
- Zemskov, V. N.(1991), "Zakliuchennye, spetsposelentsy, ssyl'noposelentsy, ssyl'nye i vysslannye (Statistiko–geograficheskii aspekt)," *Istoriia SSSR*, No. 5, 151–165.
- Zemskov, V. N.(1991), "'Kulatskaia ssylka' v 30-e gody,"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ia*, No. 10, 3–21.
- Dallin, Alexander and Lapidus, Gail W.(1991), eds., *The Soviet System in Crisis: A Reader of Western and Soviet Views*, Westview Press.
- Davies, R. W.(1989), *Soviet History in the Gorbachev Revolutio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Davies, R. W.(1997), *Soviet History in the Yeltsin Era*, London: Macmillan.
- Gorbachev, M.(1987), *October and Perestroika: the Revolution Continues*, Moscow.
- Korotich, Vitaly and Porter, Cathy(1990), eds., *The Best of Ogonyok: The New Journalism of Glasnost*, London: Heinemann.
- Kozlov, Nicholas N. and Weitz, Eric D.(1990), eds., *Nikolai Ivanovich Bukharin: A Centenary Appraisal*, New York, NY: Praeger.
- Markwick, Roger D.(2001), *Rewriting History in Soviet Russia: The Politics of Revisionist Historiography, 1956–1974*, London: Palgrave.
- Marsh, Rosalind(1995), *History and Literature in Contemporary Russia*, Washington Square,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McClairand, Elaine(1998), "The Politics of History and Historical Revisionism: De-Stalinization and the Search for Identity in Gorbachev's Russia, 1985–1991,"

*The History Teacher*, Vol. 31, No. 2, 153-179.

Nove, Alec(1989), *Glasnost' in Action: Cultural Renaissance in Russia*, Boston, MA: Unwin Hyman.

Raleigh, Donald J.(1989), ed., *Soviet Historians and Perestroika: The First Phase*, M. E. Sharpe.

Riordan, Jim and Bridger, Sue(1992), trans. and eds., *Dear Comrade Editor: Readers' Letters To the Soviet Press under Perestroika*,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Abstract>

### **The Gorbachev Revolution and Stalinism: Rewriting Soviet History under Glasnost'**

Namsub Ki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nature of Stalinism among Russian writers, particularly historians, during the Gorbachev era. Enjoying almost unlimited freedom of speech under glasnost', Russian writers tried to rewrite the history of Stalin's era overall. They sought to find the origins of Stalinism, reexamined the causes and results of the forced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and industrialization, and wrote about the Stalin's crimes of which almost most of the Soviet people did not know until then. Moreover, they challenged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of the Soviet-German War through which the Soviet Union emerged as one of two superpowers in the postwar era.

The enlarged freedom of research of the Soviet past, however, did not always produce good works. This is because rewriting Soviet history has been begun mainly by the nonspecialists such as publicists and journalists who were less familiar with historical research. In analysing the main aspects of Stalinism, they tended to put certain fixed conceptions over the empirical facts in order to serve a political purpose. Therefore, for them, Stalinism was not the complicated social and political phenomena whose mechanism was to be explained, but a historical deviation from "normal course" which was to be refused.

Such a low quality of the debate was aggravated by the fact that most of Russian writers still kept traditional Soviet Marxist views of history as their main methodology, which has tended to emphasize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They failed to reinterpret Soviet history with new historical methodology emphasizing social and cultural views of history. Some researchers, however, showed their capability sufficient for rewriting Soviet history seriously. Their works made much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historiography after Gorbachev.

주제어: 스탈린주의, 집단화, 공업화, 테러, 독소전쟁

Stalinism, collectivization, industrialization, terror, Soviet-German War